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이주*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age 라는 대학으로 파견되었고, 대학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건물수도 많지 않았다. 대학 내에 시설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자판기나 카페등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매우 편리했다. 대학 내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방학 중이어서 조용한 편이었고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수업	처음에 Langara 대학을 가면 반 분반을 위해 Listening test를 보는데 많이 어렵지 않은 난이도였다. 반은 총 5개의 반으로 분반이 되었고, 대부분 일본학생들이 많았다. 내가 배정 된 반은 한국인 3명 일본인 14명 중국인 1명으로 구성된 반이었다. 반을 배정받은 첫날은 오후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옆 친구와 서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 다른 날은 학교에서 나눠주었던 바인더로 수업을 하는데 매번 순서대로 수업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바인더를 가지고 다녔다. 수업은 주로 조별로 활동을 하는데 내용은 대부분 대화 형식의 수업이었고, 발음교정 수업도 진행이 되었다. 일주일에 1번은 오전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오후 수업까지 하는데 이틀정도는 외부 활동으로 하였다. 오전 수업만 하는 날은 오후에 친구들과 밴쿠버의 유명한 장소들을 여행을 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수업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편이었다. 우리 반은 과제가 일기 쓰는 것 밖에 없었는데 다른 반은 홈스테이 부모님 인터뷰해오기 등의 과제가 있었다. 수업을 조별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들과 대부분 같은 조가 되는데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날은 모든 반이랑 다 함께 activity를 하였는데 그때 다른 반 학생들과도 친해 질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ctivity	<p>학교에서 카약,vancouver discover, whistler trip, vancouver aquarium, vancouver museum을 같이 가는데 카약을 타러 갔을 때에는 생각보다 많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옷과 모자, 선글라스를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vancouver discover는 점심을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챙겨가는 것이 좋고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다. whistler trip 정상에 가면 생각보다 춥기 때문에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캐나다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카약,vancouver discover, whistler trip을 갈 때에는 긴팔을 입고 가는 것이 피부가 덜 탈 수 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캐나다도 똑같이 여름 날씨이다. 3주 동안 비는 두 번 정도 온 것 같은데 한국처럼 비가 많이 오지는 않는다. 대부분 햇빛이 강하고 뜨거워서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다녀야 한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니다가 눈부실 때 쓰면 좋다. 한국보다는 많이 건조해서 수분크림을 많이 발라줘야 한다.</p>
안전	<p>3주 동안 딱히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 밤 10시만 지나도 길이 많이 어둡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시 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p>
숙소	<p>홈스테이는 다 다른 곳으로 배정 받게 되는데 나는 벤쿠버가 아닌 버나비라는 곳으로 배정받게 되었다. 우리 홈스테이 집은 1층집이었고 내방은 넓고 깨끗했다. 규칙은 통금시간이 있었고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설거지 하는 것 빼곤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었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나를 정말 잘 대해주셨고, 같이 어딜 데려가 주기도 하였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 외부식당 ( ) 기타( )</p> <p>홈스테이 부모님이 매일 점심을 샌드위치를 싸주시는데 나는 매번 샌드위치가 달라서 좋았다. 그리고 내가 매운 것을 좋아하는 걸 아셔서 어떤 날은 컵라면을 챙겨주시기도 하였다. 항상 과일과 과자를 꼭 챙겨주셨다.</p>

교통	나는 밴쿠버가 아닌 버나비에 배정을 받아서 통학하는 시간이 꽤 걸렸다. 집에서 학교까지 스카인트레인과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걸렸지만 버스나 트레인이 자주자주 있어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다. 트레인과 버스를 탈 수 있는 카드를 학교에서 지급을 해줘서 따로 돈이 들지는 않았다.
----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유심칩	60000	
교통비	60000	페리값
학교 수업 외 활동비	500,000	
쇼핑	300,000	
합계	920,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캐나다 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 홈스테이 부모님과 메일을 자주 주고 받았는데 캐나다는 여름이라고 하여서 얇은 옷을 많이 준비해서 갔었다. 막상 밴쿠버의 날씨는 햇빛이 강하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춥기 때문에 긴팔, 긴바지, 겹옷은 꼭 준비해서 가야한다. 그리고 유심칩을 구매하여야 하다면 미리 한국에서 구매를 하고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 막상 가면 학교에서나 홈스테이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외부에 있을 때는 사용하니까 1G가 정도로 구매하는 것이 적당하다. 출국하기 전 홈스테이 부모님과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필요한 물품을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미리 규칙 사항을 물어보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도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데 카약을 타러 갈 때에는 꼭 여벌 옷을 챙기는 것이 좋다. 휘슬러 여행을 갈 때에는 춥기 때문에 긴팔과 겹옷을 꼭 챙겨야 한다. 걷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운동화는 꼭 가져가야 도움이 된다. 3주간 매일 점심을 대부분 샌드위치만 싸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컵라면을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p>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 지원할 때는 바로 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커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바로 붙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사실 가기 전에는 내가 영어로 대화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실력이라서 걱정도 많이 되었다. 하지만 막상 가면 한국인이랑 같이 있지 않는 이상 영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처음 캐나다에 도착해서 이틀정도는 적응도 안 되고 힘들었지만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주 동안 홈스테이 부모님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캐나다 생활을 빨리 적응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외박이 안 되어서 더 많은 곳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벤쿠버라는 곳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기회가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홈스테이라는 생활이 안전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3주 동안 같이 생활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과 친해 질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다.

##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class2



Lynn canyon park



kayaking



vandusen botanical garden



victoria



whistler